임윤아, 중국 '코스모글램나이트' 올해의 인물

소녀시대 출신 배우 임윤아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징안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2019 COSMO GLAM NIGHT' 에서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2019 COSMO GLAM NIGHT은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로, 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인정받은 아시아 스타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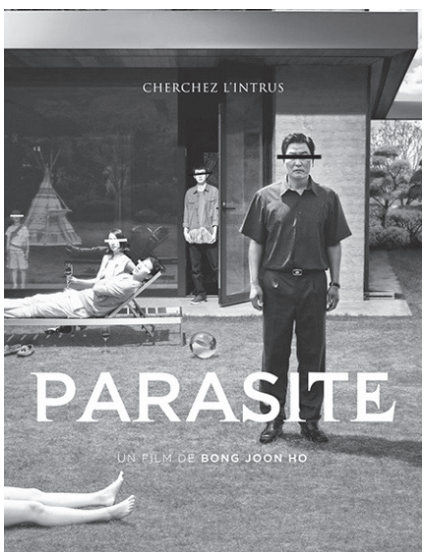
임윤아는 아름다움, 사랑, 장인정신, 꿈, 패션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시상에서 꿈 부문에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윤아는 940만 관객을 동원해 올여름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영화 '엑시트' 를 통해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줘 올해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부일영화상 여자 인기스타상, 아시아 스타 어워즈 아시아의 얼굴상, AAA(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배우 부문 베스트 아티스트상, 베스트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은 것에 이어 중국 최상급 권위와 인지도를 가진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한 번 더 전해 명실상부 '아시아의 퀸' 임을를 입증했다.

더불어 임윤아는 중국 드라마 '무신조자룡' 에 출연해 누적 조회 수 100억 뷰를 돌파하는 등 '한류 여신' 으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 현장에서도 완벽한 비주얼과 함께 유창한 중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인터뷰를 소화해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기생충' 전미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선정

'기생충' (감독 봉준호)이 전미비평가협회(NBR)로부터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NBR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기생충' 은 함께 후보에 오른 마티 디오프 감독 '아틀란티크' 와 페드로 알모도바르 연출 '페인 앤 글로리' 를 제치고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기생충' 은 아카데미에 한발 더 다가선 모양새이다. 전미 비평가협회는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 뉴욕 비평가협회, LA 비평가협회와 함께 오스카 바로미터로 통한다.

최우수 작품상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맨' 에 돌아갔다. 감독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를 연출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받았고, 이 영화에 출연한 브래드 피트가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언컷 젬스' 의 애덤 샌들러는 남우주연상을, '주디' 의 러네이 젤위거는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은 각종 영화제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애틀랜타 비평가협회로부터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았고 올해 10대 영화에도 이름을 올렸다. 내년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 한국 영화 대표로 출품됐다.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비평가협회 시상은 내년 2월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이어지는 각종 영화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NYT "넷플릭스 첫 한국 드라마 '킹덤', 최고 TV쇼"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이 뉴욕타임스(NYT)가 꼽은 최고 인터내셔널 TV쇼 톱(TOP)10으로 선정됐다.

넷플릭스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NYT가 '킹덤' 에 대해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 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NYT는 또 '킹덤' 을 "16세기 궁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에 좀비로 변하는 역병과 신분 계급 사이의 드라마를 더한 호러 어드벤처극" 이라고 극찬했다.

주지훈, 배두나, 류승룡이 주연한 '킹덤' 은 죽은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향한 조선의 끝에서 굶주림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극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세계적으로 '갓 열풍' 을 일으키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내년 3월 시즌2 론칭을 앞뒀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작품인 멕시코 다큐멘터리 '43인의 실종자들' 이 '킹덤' 과 함께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러시아 인형처럼' , '믿을 수 없는 이야기' ,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 2019년 최고의 TV쇼로 이름을 올렸다.

1293호 숫자퍼즐 정답

3	5	7	2	6	9	4	8	1
8	2	4	5	3	1	6	7	9
6	1	9	4	7	8	5	2	3
1	4	8	6	2	7	3	9	5
9	3	2	8	1	5	7	4	6
5	7	6	9	4	3	8	1	2
4	6	1	3	8	2	9	5	7
2	8	5	7	9	6	1	3	4
7	9	3	1	5	4	2	6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황혼에 찾아온 불안한 부부(夫婦) 인연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운(運)의 흐름에 따른 운명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 인연이다.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배우자와 해로(偕老)를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살아가는 운(運)의 흐름이 평탄할 때 가능하지만 운(運)의 흐름을 잘못 만나면 배우자 인연도 불안해진다. 작년의 어느 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필자를 찾아와서 자신과 남편의 사주를 상담을 했는데 필자가 부부(夫婦)의 사주(四柱)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두 사람의 궁합은 그래도 비교적 잘 맞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남편에게 지나가고 있는 운(運)의 흐름을 볼 때 부부(夫婦)의 인연이 불안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남편과는 잘 지내고 계신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남편하고는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이 나이에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황당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남편분이 현재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을 볼 때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입지 못하는 운로(運路)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運)의 흐름을 지날 때 억지로 같이 한 방에서 지내게 되면 오히려 부인에게 큰 병고(病苦)가 오거나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혼을 하기 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주말부부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거나 부득이 하게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서로 잠을 자는 방을 따로 쓴다면 서로의 인연이 지켜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왜 그런 것이냐고 되묻는 것이다. 필자가 다시 답해 말은 "꽃과 나비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 서로의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었다. 후에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는데 남편하고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당장 이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